010 Korean Architecture Works

자양3세대 종합복지센터

Jayang Welfare Center

조민석 / 정회원 단아 건축사사무소 **Architects** / Cho, Min-suk, KIRA

3세대가 소통하는 마을공동체

요즘 맞벌이하는 아들 · 며느리를 대신해 할머니가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대려다 주는 것이 혼한 일이 됐다.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엄마와 할머니도 아이와 같은 건물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, 한 건물에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센터, 사회복지관을 갖춰 어린이 · 성인 · 노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, 세대간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.

도시의 여백

비워짐은 그 지체로서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채워짐에 의해 돋보인다. 그러나 현대 도 시공간은 무분별한 개발의 역사로서 무가치적 도시영역 확장과 채우는 것에 중점을 가지고 발전해오고 있다. 본 계확안에서는 도시의 여백을 상상해보고 감성적 도시풍경 을 꿈꾼다. 도심에 비워진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연을 이끌어 들이고 건물에 싱그 러운 녹음을 투영하여 따사로운 공간을 도심에 제공한다. 건물의 여백은 건물 옆 빈 배 경이 아니라 도시라는 큰 캠퍼스위에 놓여진 하나의 퍼즐조각임을 생각한다.

이야기가 있는 마당

이야기는 수많은 생각의 집합이며 행위의 결과물이다. 이야기 탄생에 있어 주요한 원인은 이벤트와 이벤트를 수행하는 행위자이지만 이 두 원인이 생성될 수 있는 근본은 장소에 있다. 장소는 공간이며 무형의 이벤트이다. 도시와 건물의 경계에 마당을 두어 사회구성원의 모임을 유도하고, 각종 이벤트를 만들어 줌으로써 생동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. 또한 막힘이 없이 흐르고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 건물에 무수한 성격을 투영한다. 앞마당을 통해 발단되는 이야기는 안마당과 하늘마당으로 이어지며 내부공간에 다양한 이벤트를 만든다. 아늑하고 햇빛이 잘 드는 밝은 공간인 안마당은 사용자에게 안도감을 주며 어린이집과 연계되어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된다. 하늘마당은 한가로이 주위를 거닐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를 즐길 수 있는 처마와 툇마루로 녹음이 우거진 옥상정원으로 계획하여 외부공간을 무한히 유입되는 성의 장소를 제공한다.

The community for multi-generations

These days it's not uncommon to witness grandparents taking their grandchildren to a nursery for busy parents. I propose a place where parents and grandparents can bring their kids and spend quality time together in the same building where one can find a nursery, a senior welfare center, and a social welfare center.

The void in the city

Modern cities show the history of thoughtless developments concentrating on filling up and expanding with no meaning.

I suggest meaningful emptiness with emotional scenery in the city. The void spaces supply opportunity to bring in nature, resulting in a heartwarming atmosphere throughout the city. Blank spaces between buildings are not just vacant lots but puzzle pieces of a huge campus called "City".

The yards filled with stories

A story is a gathering of various thoughts and results of activities. The main causes for the birth of stories are events and people, which are easily found at yards. I propose a yard at the border of the building; this will induce social gatherings and various events, and create a vigorous atmosphere. Flowing in and out freely, these spaces will project diverse characters on the building. A story originating from the front yard, flows through the courtyard and to the Sky court emitting diverse excitement. The well-lit and cozy courtyard not only comforts users but acts as a playground for kids from the nursery. Sky court, as a roof garden where one can stroll, provides a green and shady restring place.

Project Team Kwon, Eun-bo · Pack, Young-sil · Choi, Jin-hyup

Client Seoul Gwangjin-gu

Location Seoul Gwangjin-gu Jayang-dong 581-2

Site Area 1,010.70m² Gross Floor Area 2.997.24m² Building Area 521.09m²

Gross Floor Area 2,997.24m² Building to Land Ratio 51.56% Floor Area Ratio 178.85% Structure R.C

Structural Engineer han structral engineers

Electrical Engineer dongdo MEC inspire Co., Ltd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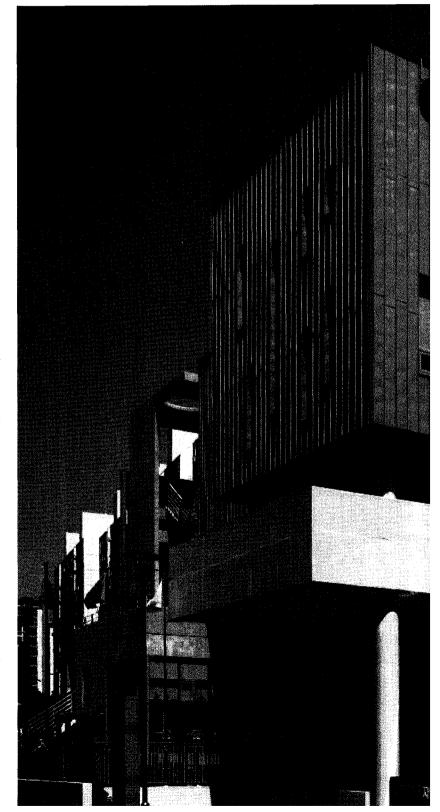
General Contractor LIG E&C Co., Ltd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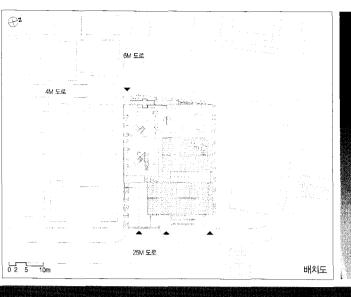
Building Scope B2, 5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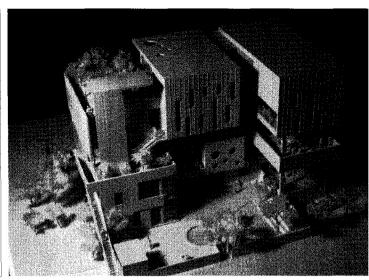
Finishing Materials exposed concrete, titanium zin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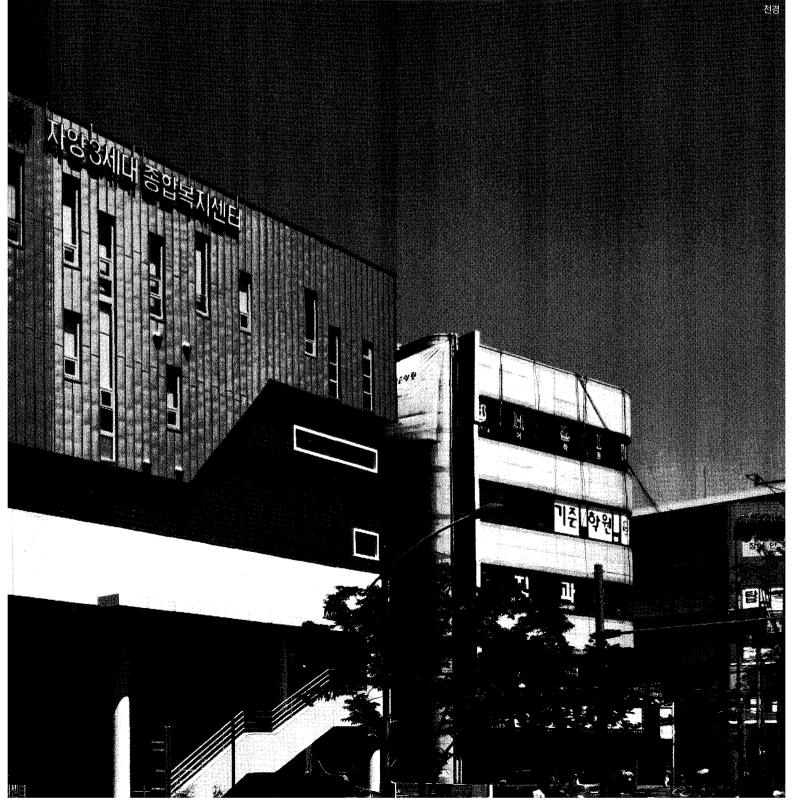
Photographer Park, Jea-you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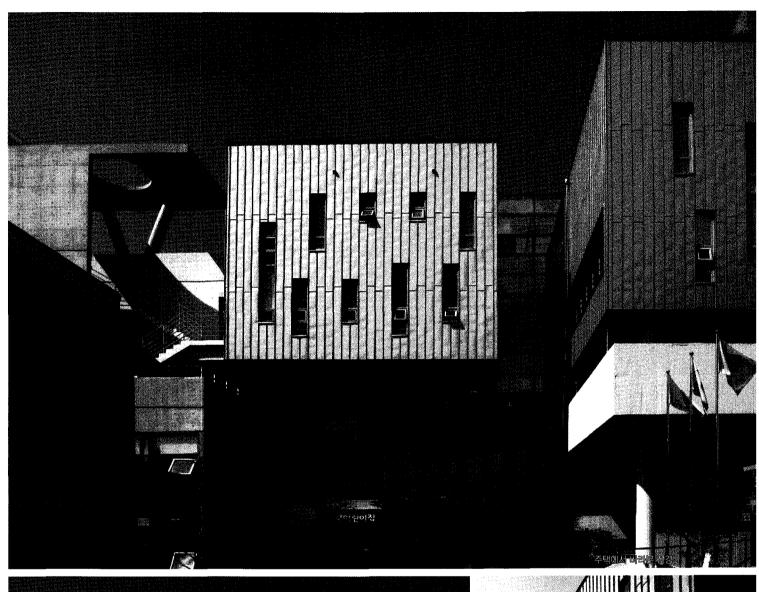
Cost not disclosed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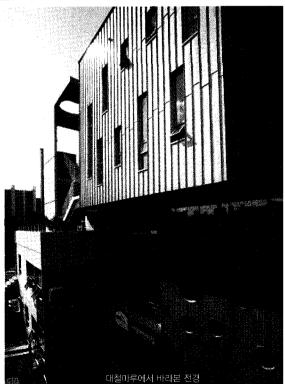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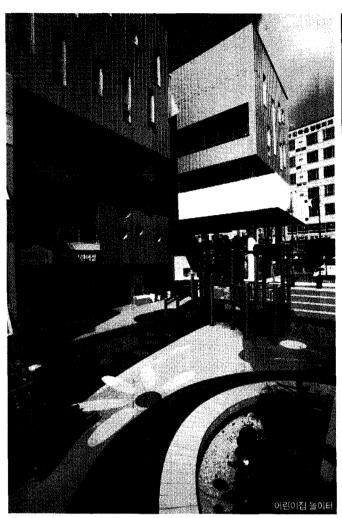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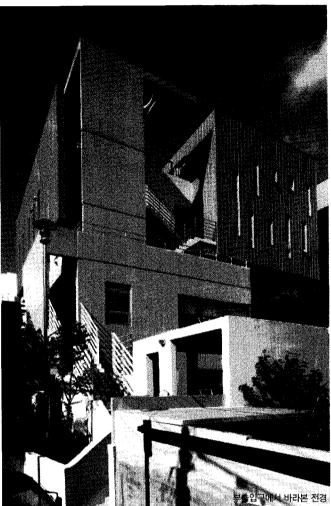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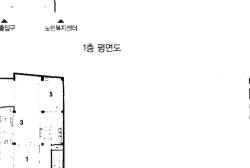












지하 1층 평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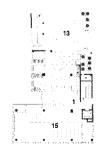


3층 평면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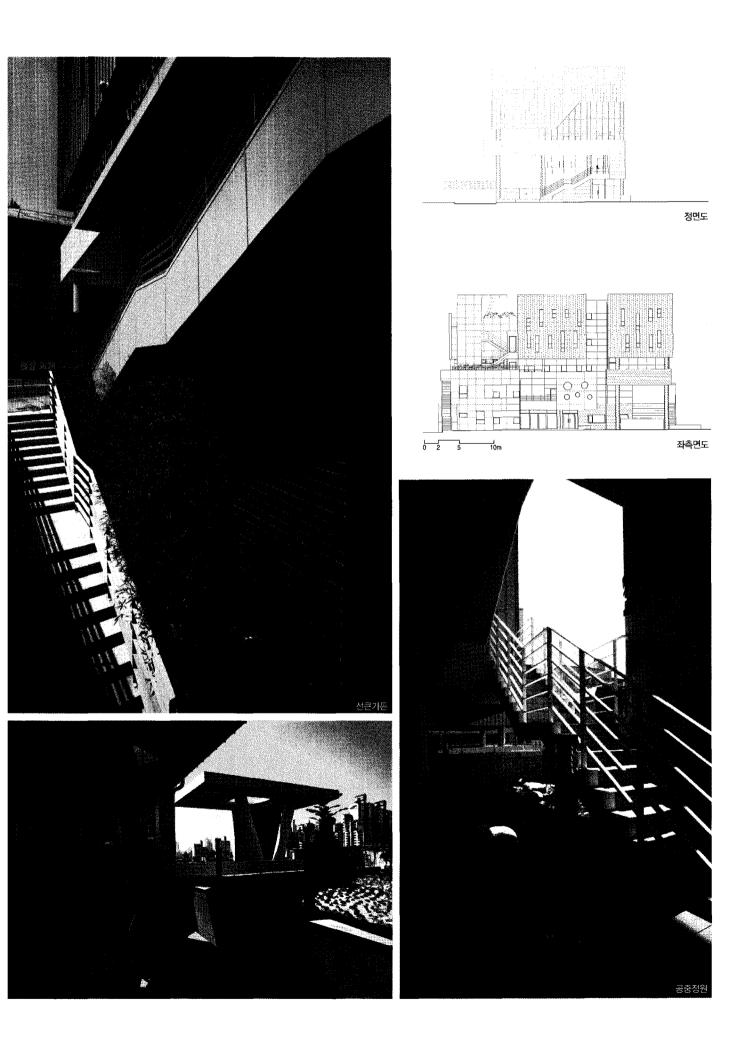
2층 평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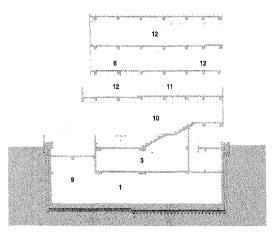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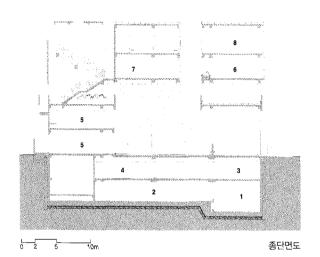
5층 평면도

37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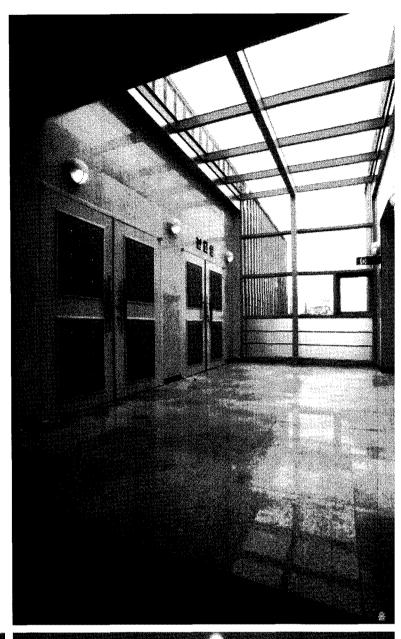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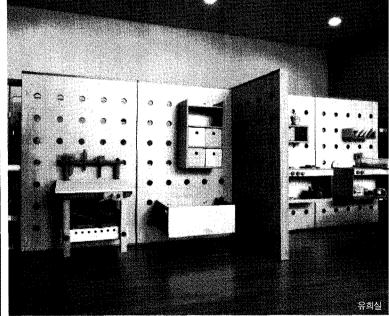




01_ 발전기실 02_ 주차장 03_ 강당 04_ 조리실 05_ 보육실 06_ 물리치료실 07_ 실버 컴퓨터 교실 08_ 집회실 09_ 전기실 10_ 목외 집회장 11_ 사회복지 사무실 12_ 노인복지 사무실







1011 대한건축사협회 **39**